오모리 오백나한

나한이란 불교에서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자를 말합니다. 나한께 기도를 드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온다는 신앙에 뿌리를 둔 오모리의 라칸지 절(나한사)은 이와미 은광의 채굴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라칸지 절은 에도 막부의 제 8 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1684~1751)의 차남이자, 당시 이와미 은광에서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를 역임했던 다야스 무네타케(1716~1771)의 후원을 받아 1741 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칸지 절이 완공되기까지 25 년이라는 세월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그 결과 훌륭하고 인상적인 모습의 사찰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만들어진 세 동굴에는 수백 개의 석조 나한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세와 표정이 각각 다른 석상들을 보며 참배객들은 죽은 가족과 닮은 모습의 석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석상들의 뒤편에는 지역의 신도부터 다야스 씨족이나 에도(현재의 도쿄)의 궁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부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참배객들은 사찰이 창건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치형의 돌다리를 건너 각각 250 개와 251 개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두 동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칸지 절은 ‘오백나한’이라고도 불리지만 정확히 500 이라는 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불상이 존재했지만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불상이 파괴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나한상이 500 개입니다.